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세상에서 물질도 없고, 환경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목숨 걸고 해도 성공하기 어려우니, <천국 황금성>을 얻으라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휴거>를 소홀히 여기고 안 하니, ‘영원한 복’을 제 발로 차 버린 애석한 자들이다.

2.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아느냐. <영원한 천국>이 어떠한지 정말 알고 있느냐. <휴거>가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성자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시대 보낸 자>가 누구인지 정말로 아느냐.

정말로 진실로 안다면, 네가 그리 살지 않으리라.

정말로 진실로 안다면, 그깟 TV, 게임, 소설, 음란물, 이성, 세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살지 않으리라.

모르니, 그리 사는구나.

이런 자들은 계획적으로 휴거시키지 않는다.

3. 너희는 <성자의 신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모르니, ‘공주’처럼 대해 주고, ‘황태자’처럼 대해 주고, ‘천하의 귀한 왕비’처럼 대해 줘도 가치를 모르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구나.

4. <뇌 차원>이 낮고, <시대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워서 가치를 모른다. 당연한 결과다.

5. 세상이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 하나, 길바닥에 나앉아서 ‘가을 벌판의 억새’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 보면, 그제야 깨닫고 ‘주’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주’가 얼마나 자기를 귀히 대해 줬는지 알게 되리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느니라.

6. 기회를 줘도 안 하면 <주>는 ‘다른 자’를 불러서 정녕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다.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라.” 하며, 하늘의 법대로 행한다. ‘하늘의 때’는 됐고 ‘갈 길은 머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같이 할 수밖에 없다.

7.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자’와 ‘보낸 자’를 귀히 보고 마음 변하지 않을 자가 있는지, 턱을 고이고 땅을 내려다보신다.

8. 별것도 아닌 인생을 살면서 전능자 앞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별의별 오해를 다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사는구나. 그러다 별의별 고통을 다 당하고 살게 된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돌이키지 않은 연고다.

9. 미련한 자에게는 ‘때’다. ‘채찍’이다.

10. ‘전능자’와 ‘보낸 자’를 업신여긴 죄는 그 값이 너무나 크다.
11. 미련한 자라도 만들면 <신부>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고 믿고 행하여 자기를 만든 자는 <신부 자격자>가 되어 쓰임받는다.
12. ‘만들었다.’함은 무엇이나. ‘다시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함이다.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다.’ 함이다.
13. 잡초 동산이었던 월명동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다. 만들어 놓으니, 월명동은 영원히 잡초 동산으로 변하지 않는다.
14. 진짜 만들면 변하지 않는다.
15. 진짜 만든 자는 변하지 않는다.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16.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7. 육과 혼과 영을 안 만든 자가 <천국 황금성>에 가겠느냐.
안 만든 자는 ‘천국 문’도 구경 못 한다.
18. ‘자기 혼과 영’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도록 온전히 만들어야 <천국 황금성>에 간다.
19. 성자가 한 번 떠나시면, 다시는 땅에 안 오신다.
20. 성자가 떠나시는 길에 한 걸음 멈추고 속 이야기를 하시니,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행해라.
21. <황금성>을 귀히 여기고, <휴거>를 귀히 여기고, 너를 택하여 불러서 <신부로 삼은 것>을 귀히 여기고, <분체>는 성자의 육이며 성자께로 가는 안내자이니 귀히 여기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자>를 귀히 여기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귀히 여겨라.
22. 네 몸도 귀히 여기고, 함부로 쓰지 말아라.
23. 네 생각도 귀히 여기고, 뇌 속에 아무것이나 넣고 살지 말아라.
24. <성자의 말씀>은 ‘생명이 사는 배’와 같고, ‘배고파 죽어 가는 자 앞에 양식’과 같으니라.